

‘주한미군 現 규모 유지’ 담은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위원장 초안엔 빠졌으나 월슨 의원이 수정안 제출해 군사위서 가결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거론 속 법안 향해 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 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판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월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다.

월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했던 2025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월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부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지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추진에 대해 의회가 일정한 견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연합뉴스

태국서 고위급 승려들 유혹해 100억대 갈취 女 체포

원로급 스님 9명 승려직 박탈

30대 여성, 164억 쟁겨 도박

태국에서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 등 고위급 승려들을 다수 유혹해 은밀한 관계를 맺고 거액을 갈취한 여성이 붙잡혔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일반 승려 관련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고위직 승려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태국 불교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태국 중부 논타부리주의 한 고급주택 단지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 위라완 엠사왓을 갈취, 자금 세탁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위라완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위급 승려들을 표적으로 삼아 유혹, 이들과 연에 관계를 시작한 후에 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위라완의 휴대전화 5대에서는 그가 여러 유명 사찰의 고승들과 함께 찍은 사진·영상 8만건, 여러 스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해 협박·갈취한 사실이 담긴 수많은 채팅 기록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라완은 지난달 말 방콕 한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이 잠적했다가 이후 환속한 것을 계기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위라완이 이 스님과 내연 관계가 됐다가 자신이 임신했다면서 양육비 등 720만 바트(약 3억700만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사찰의 60대 주지 스님은 지난 2월



태국 경찰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태국 중부 논타부리주에서 여러 고위급 승려들을 유혹,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가운데)을 체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의 사찰 계좌에서 38만 바트(약 1천620만원), 개인 계좌에서 1천280만 바트(약 5억4천700만원)를 각각 위라완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스님은 지난 14일 승려 생활을 그만뒀지만, 자신은 위라완과 사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위라완은 자신이 승려9명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중8명은 이후 환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라완의 은행 계좌에는 지난 3년간 3억8천500만 바트(약 164억원)가 입금됐고, 위라완은 이 돈을 대부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주지 스님과 원로 스님 등 최소 9명이 승려직에서 쫓겨났으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승려를 신고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폼탐 웨차야차이 총리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타격받은 불교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사찰 재정 투명성 제고 등 승려·사찰 관련 법 규정 강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지라유 후양삽 태국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英, 아프간 협력자 명단 실수로 유출…수천명 이주 수용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 이후 영국 이주를 희망한 아프간인들의 개인정보가 영국 국방부 관리의 실수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 탈레반의 보복을 우려해 영국에 이주를 신청한 1만8천 700여명의 개인정보가 2022년 2월 유출됐다.

이중 일부는 아프간 주둔 영국군과 한편에서 싸운 이들이었고, 아프간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영국 국방부 관리의 실수로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2023년 8월 일부 정보가 페이스북에 나타났을 때 파악했고, 그로부터 9개월 후에 정보가 유출된 이들을 위한 영국 정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후 이들과 가족 등 4천500명이 영국에 도착했고 추가로 2천400명이 이주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4억파운드(7천430억원) 비용이 소요됐고 4억5천파운드(8천359억원)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아프가니스탄 군인 600명과 그 가족 1천800명이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탈레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정착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정보 유출 사실 자체도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이 지난해 이 사실을 파악하자 정부는 보도 및 공표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이날 런던 고등법원이 공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존 할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이런 심각한 데이터 유출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전임 정부 때인 3년 전 발생한 일이나 (현 장관으로서) 영향을 받은 모든 이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할리 장관은 이 정보 유출로 인해 체포되거나 죽음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언급을 거부했지만, 독립적인 조사에서 정보 유출만으로 이들이 표적이 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日제약사 직원, 중국서 간첩혐의로 징역 판결

2023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붙잡힌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남성 직원에게 16일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고 주중 일본대사관이

전했다.

아스텔라스의 현지 법인 간부였던 이 남성은 귀국 직전인 2023년 3월 형법과 방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